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

權 耿 德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

權 耿 德

1998. 12



國文要約

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임금인상과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원자재 조달 등의 이유로 對태국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7년 한국과 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태국의 외환위기이후 현지 투자기업들은 자금조달과 내수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여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투자축소 내지 보류를 검토중이다. 또한 한국에 닥친 외환위기로 자금사정과 경영여건이 모두 악화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기업들로서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二重苦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와 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은 앞으로 충분한 현지화학습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對태국 투자 및 경영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국은 경제회복의 모범국가이며 회복가능성이 어느 위기당사국보다 높고 회복시기도 빠를 것이 예상되므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투자활동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실제 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이 있어 투자기업은 투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지법인들에게는 일본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目 次

I. 서론	9
II.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상황	11
1. 경제현황 및 전망	11
2.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13
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3
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6
3. 최근 외국인 투자동향의 특징	18
가.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회복세	18
나. 금융부문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22
다. 일본기업의 투자방식 변화	27
III.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변화	30
1. 실적호전 사례	31
가. R社의 사례	31
나. H社의 사례	35
다. H펠프社	37
2. 경영악화 사례	38
가. L전자社	38
나. S전자社	42
다. L화학	45
라. D엔지니어링社	47
3. 경영실적 변화의 요인	47
IV. 현지법인들의 구조조정	49
1. 수출선 다변화	49

2. 내수기반 확충	49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평가	50
4.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의 비교	51
가. 환차손 경감	51
나. 현지 매출감소 대처방안	52
다. 수출증대	53
라. 현지화 강화	54
 V. 결론: 한국현지 법인의 경영개선 전략	 55
 參考文獻	 56
 Executive Summary	 57

表 目 次

〈표 Ⅱ-1〉 태국의 주요경제지표	12
〈표 Ⅱ-2〉 중기 태국경제 전망	13
〈표 Ⅱ-3〉 투자장려법과 외자도입정책의 전개	14
〈표 Ⅱ-4〉 국가별 對태국 외국인투자 현황	19
〈표 Ⅱ-5〉 산업별 對태국 외국인투자 현황	20
〈표 Ⅱ-6〉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업종(1998년 10월)	22
〈표 Ⅱ-7〉 태국 금융개혁안의 상업은행에 대한 조치	26
〈표 Ⅲ-1〉 R社 태국법인의 생산능력	32
〈표 Ⅲ-2〉 외환위기 이후 R社의 경영성과 변화	33
〈표 Ⅲ-3〉 매출액 구성	34
〈표 Ⅲ-4〉 외환위기 이후 H社의 경영성과 변화	37
〈표 Ⅲ-5〉 L전자의 매출액 구성	39
〈표 Ⅲ-6〉 외환위기 이후 L전자의 경영성과 변화	41
〈표 Ⅲ-7〉 S전자의 매출액 구성	44
〈표 Ⅲ-8〉 L화학의 매출액 구성	46



I. 서론

1997년초부터 시작된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태국정부는 同年 7월 2일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입각하여 운영해 오던 환율정책을 자유변동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그후 8월 20일부터 IMF의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자금지원의 조건인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對태국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임금인상과,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원자재 조달 등의 이유로 對태국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인도차이나국가들의 개방과 메콩江 개발 등 환경 변화와 함께 태국은 이들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의 최적지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태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금융시스템 붕괴에 의한 것인 만큼 외환위기 이후 투자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내수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여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투자축소 내지 보류를 검토중이다.

또한 한국에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자금사정 악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선도해 오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이는 향후 우리기업들의 해외영업기반 상실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태국 투자청(BOI)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현지 기업들은 경기회복기간을 3년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과 태국이 동시에 경기침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양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태국과 한국의 경제회복이 이들의 향후 투자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법인들이 양국의 외환위기 과

정에서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외환위기를 전후한 태국의 최근 경제상황변화와 외국인투자동향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법인의 경영실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법인들의 구조조정실태를 분석·평가하였으며 향후 현지법인들의 경영개선전략을 모색하였다.

II.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상황

1. 경제현황 및 전망

1997년초부터 시작된 외환시장 불안으로 同年 8월 IMF로부터 172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태국은 외환위기의 원인인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후 태국은 극심한 내수침체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1998년초 IMF와 -1%로 예상하던 경제성장률은 1998년 8월 제5차 자금지원 협상에서 -7%로 재조정된 바 있어 태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들어 태국의 금융시장은 급속히 안정되었으며, 연말까지 11%를 예상하던 물가상승률도 하락하여 태국경제가 심각한 상태는 지났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98년 1월에 56 바트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1월 현재 36바트대에서 안정되었고 외환보유고도 약 28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IMF와 1998년 11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합의이행사항점검 협상을 벌였다. 지원조건의 충실한 이행과 강도높은 경제개혁으로 인해 IMF는 지원조건을 점차 완화하였고 금융지원자금은 1998년 11월 현재 119억 5,000만 달러가 유입되어 대외신인도와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998년 8월 IMF 지원 1년째를 맞이한 태국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은행권 개혁을 위한 종합금융개혁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11월 IMF와의 제6차 의향서에서는 1999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5%로 합의하여 同 패키지 와 재정지출을 통해 태국의 내수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태국이 이들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시간내에 태국의 경제회복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1〉 태국의 주요경제지표

	단 위	1993	1994	1995	1996	1997 ²⁾	1998 ³⁾
명목 GDP	십억달러	125.6	144.5	168.4	185.0	160.7	113.0
1인당 GDP	달러	2,152	2,446	2,837	3,063	2,535	1,843
GDP 성장률	%	8.3	8.8	8.7	5.5	-0.4	-7.8
실업률	%	1.5	1.3	1.1	2.0	3.5	3.4
재정수지/GDP	%	2.2	1.8	2.7	2.2	-1.0	-2.6
물가상승률	%	3.3	5.0	5.8	5.9	9.5	8.0
무역수지 ¹⁾	십억 달러	△ 4.0	9.1	△14.9	△17.3	△ 5.4	11.8
수출	십억 달러	36.6	44.5	55.0	55.0	57.1	54.5
수입	십억 달러	40.6	53.6	69.9	72.3	62.7	42.7
경상수지/GDP	%	-5.0	-5.6	-8.0	-7.9	-3.9	11.5
FDI 승인액	십억 달러	1.4	0.9	1.2	1.5	1.2	6.4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24.0	28.9	35.5	37.2	25.7	28.5
對美 환율	바트(Baht)	25.32	25.09	25.19	25.61	39.00	39.5

주: 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8.

2) IMF Press Release No.97-37.

3) 추정치

자료: Bank of Thailand, *Quarterly Bulletin*. 1998. 6.

Bol Investment Review, Board of Investment.

WEFA의 세계경제 전망에 의하면 태국경제는 1998년과 199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1999년 하반기부터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1996년까지 적자상태를 기록하였으나 국내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1997년 하반기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태국의 산업구조가 경공업위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태국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2000년이후부터 자본재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8년초 바트貨의 급속한 평가절하(1월 6일 56바트까지 하락)와 세계자본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43바트대를 예상하였던 환율은 1998년 하

반기부터 급속히 안정되기 시작하여 1998년 11월중순 현재 36바트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의 외환시장은 외자의 활발한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1999년에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998년초 11%를 예상하던 물가상승률도 8%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2〉 중기 태국경제 전망

항 목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실질GDP성장률	%	-6.8	0.9	2.6	4.1	5.5	5.9
소비자물가상승률	%	10.4	9.3	7.8	5.6	4.5	4.2
경상수지	십억 달러	10.1	8.1	3.7	0.3	-3.2	-5.7

자료: WEFA, *Asia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8.

2.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태국정부는 1950년대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해외에 홍보할 목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을 설립하였다. 1970년대에는 태국의 노동집약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장려법을 제정하였으며, 투자청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다. 이후 태국은 일본자본이 대거유입되자 태국은 경제면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별적 외자도입정책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들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도약을 위해 공업화의 추진, 농촌개량, 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불가피하였다. 태국정부는 이를 위해서 투자관련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 등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엔화의 강세와 자국내 임금상승의 영향과 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에 따른 역내시장 확보 그리고 우회수

〈표 II-3〉 투자장려법과 외자도입정책의 전개

년 월	(정 권)	투자장려법	외자에 대한 정책	경제개발방향 (산업정책)
1954. 10	(피 분)	「산업장려법」	정부주도형	공업화정책, 수입대체지향, BOI설립
1958. 10 (싸릿)				1961. 1.: 제1차 경제개발 6개년계획 인프라정비
1962. 2		「산업투자장려법」	민간주도형	개방·적극적도입
1963. 12 (타넴)				1966.10: 제2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획
1972. 10		「투자장려법」	BOI권한강화	선별적도입
11		「외국인기업규제법」		노동집약적 육성
12		「외국인직업규제법」		
1973. 10 (싼야)			10월 혁명 · 오일쇼크 (외자선별강화)	
1975. 3 (크릿)			베트남전쟁 종결	
1976. 4 (쌌니)				
1976. 10 (타넴)				
1977. 5		「투자장려법」		1976. 10: 제4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획 수출산업 육성, 지역산업 육성
1977. 11 (끄리앙썩)				
1980. 2 (쁘랩)				
1982		BOI 「One Stop 서비스센터」 설립	(투자수속의 효율화)	1981. 10: 제5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획 후진지역 개발

〈표 II-3〉 계속

년 월	(정 권)	외자에 대한 정책	경제개발방향 (산업정책)
1983. 1	BOI포고 「투자장려승인, 세계 혜택 부여 적용기준」	(적용기준의 명확화)	동부임해공업지대개발계획, 천연 가스이용 중공업, 수출경공업 중 점지역 개발 1986. 10: 제6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획 수출촉진, 공영기업 민영화
1987. 9	BOI 「투자장려지역 기준 개 선」 공고	(투자의 지방분산화 촉진)	
	1988. 8 (차차이)		
1989. 1	BOI 「同上再見直」 공고		
1990. 5	정부 「IMF 8조국 이행」 발표 1990. 9 관세인하 및 BOI장려기업 관 세우려 조치폐지	(외국송금 자유화) (투자지방분산화 촉진강화)	남부임해개발프로젝트 구상
1990.10	BOI 「투자장려 지역 기준 재개선」 공고	(지방투자촉진과 기 간산업 육성)	1992. 1: VAT도입에 관한 관세개혁
	1992. 6 (아난)		
	1992. 9 (추안)		
1993. 4	제3지역 세계혜택 조치 추가		1993. 3: BIBF창설
1994. 9	특정업종 10업종 기간산업 지정	(기간산업 육성강화)	1995. 2: 금융마스터플랜 책정
	1995. 7 (반한)		
1995.11	제3지역 수출의무 완화	(국내시장의 판로 확대)	
1996. 5	투자지역 개선검토	(신투자지역 설립 모색)	1996. 10: 제8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인재, 사회개발 경제안정화, 효율화 지방자원개발 민관 협력강화

자료: さくら総合研究所, 『タイでの事業展開』, 1996

출 기지 거점마련의 필요에 의해 자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대거 이전하였다. 대상지역은 동남아시아로서 그 중 태국에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태국은 1980년대에 연평균 8~1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기술이전 및 경제활성화에 성공했다. 1990년대 들어 태국정부는 무역·투자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이를 권장키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태국정부는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한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투자장려업종 또는 수출비중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전액출자 허용)하여 왔으나 1998년 이를 완화한 바 있다.

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외자의 급격한 이탈현상을 경험한 태국은 안정된 외환보유고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투자청은 1997년 6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실업률 감소 등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제한규정 완화조치방안을 발표하였는데 1999년까지 실시할 규정완화조치는 다음과 같다.

투자혜택 수혜지역구분 철폐

지역에 따라 투자혜택에 차별이 있었으나 수출주도형 프로젝트는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대체용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신규 프로젝트에 한정해 면제했던 기계류 수입관세를 수출상품 제조업체가 기존설비 대체용 기계류를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해 준다.

□ 법인세 면제

총판매액중 80% 이상을 수출하고 500명이상 고용을 창출하거나 직원수가 50% 이상 증가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이때 1지역에 위치할 경우 3년간, 2지역에 위치할 경우는 5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 외국기업의 수출영업 활동허용

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태국인이 수출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사업법개정 또는 신규 법령을 제정키로 하였다.

1997년말 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부실한 금융시스템의 재건과 부실금융기관 폐쇄를 내용으로 한 금융개혁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부실채권과 증자압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들은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여 자본건전화를 모색하였으며, 태국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을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투자청은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외국인소유를 40%까지로 한정했던 콘도미니엄 및 사무실 건물의 소유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 상무부, 외무부, 방콕市 및 부동산단체와 협의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1997년말 기준으로 완공 및 완공중인 건물의 미분양금액이 1,300억 바트(약 33억 달러) 규모로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며,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사업법을 개정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태국투자법 제27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사업용 부동산의 100%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법은 빌딩단위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편, 투자청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통업, 수경농업, 자동차 엔진 및 부품수리업의 3개 업종을 투자혜택 수혜

대상 업종에 포함시켰다. 이는 유통업을 태국산업 경쟁력조성을 위한 유통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수경농업을 채소수출 확대를 위해, 자동차 엔진 및 부품 수리업은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투자청의 판단 때문에 기계류 수입관세 및 법인세 면제의 투자혜택 대상에 추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이러한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수출업종의 기계류 수입관세 및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 각종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청은 1997년에 실시한 조치로 인해 36건의 신발, 섬유 및 식품제조업체가 기계류 무관세 수입혜택을 보았으며 160억 바트(약 4억 달러)의 외국인 신규투자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의 부동산소유허용 및 부동산중개업 개방은 외국인 투자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3. 최근 외국인 투자동향의 특징

가.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회복세

국가별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일본이 태국의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진행되었던 1997년에는 바트貨기준으로 전년대비 20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특히 1998년에는 일본의 산와(山和)은행이 태국의 Siam Commercial Bank 지분매입을 비롯, 투자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 태국이 금융위기 상황에 처하자 현지화에 주력해 왔던 일본기업들은 커다란 경영위기로 작용하였다. 방콕의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태국진출 일본기업 57%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8년도

에도 37%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수송용기계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섬유, 화학, 철강 등의 업종에서도 적자기업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진출업종 중 흑자기업의 비율이 50%를 넘는 부문은 식료품과 전기·전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태국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태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이전까지 동남아 역내에 구축한 사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위험 관리체제의 강화, 원가절감 등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對태국 투자활동이 활발하던 홍콩, 대만 및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투자는 1998년 이후 자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

〈표 II-4〉 국가별 對태국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바트)

	1995	1996	1997	1998		
				Q1	Q2	6월*
일 본	12,855.8	13,250.3	44,071.0	13,568.0	19,496.0	8,465.0
미 국	6471.2	10,870.0	23,031.0	10,521.0	7,889.0	2,627.0
E U	3,778.9	4,162.2	10,487.0	7,295.0	10,231.0	2,557.0
ASEAN	3,988.7	7,804.2	9,132.0	11,500.0	9,478.0	2,793.0
홍 콩	6,948.2	5,443.9	15,704.0	2,870.0	3,644.0	2,068.0
대 만	2,405.0	3,491.8	6,135.0	31.0	1,092.0	411.0
중 국	46.4	99.0	-81.0	131.0	50.0	3.0
호 주	626.7	863.6	4,185.0	1,047.0	127.0	11.0
한 국	308.2	628.4	988.0	191.0	824.0	159.0
총 FDI 합계	49,887.0	57,472.0	117,552.0	47,923.0	55,059.0	20,911.0

*: 추정치

자료: Bank of Thailand. 1998. 9. *Quarterly Bulletin*.

국과 EU의 투자는 1998년 들어서도 꾸준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과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도의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총액면 기준으로 574억 7,200만 바트에서 1,176억 8,900만 바트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바트貨가 급속히 평가절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러로 환산하였을 때 각각 23억달러와 36만 달러로 약 50%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태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금융위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기 국가들중 가장 많은 유치액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998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증가하여 약 59억 달러¹⁾에서 7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5〉 산업별 對태국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바트)

	1995	1996	1997	1998		
				Q1	Q2	7월*
제조업	14,114.3	17,941.8	58,337.0	20,354.0	20,916.0	4,605.0
금융기관	648.2	1,822.7	3,725.0	10,784.0	7,239.0	8,931.0
유통	11,111.6	13,797.6	33,947.0	8,875.0	12,969.0	3,976.0
건설	906.1	1,782.5	5,786.0	2,845.0	3,057.0	288.0
광업	1,418.6	489.6	653.0	293.0	635.0	165.0
농업	232.3	51.2	37.0	15.0	0.0	6.0
서비스	2,186.1	3,162.2	9,082.0	2,405.0	4,362.0	933.0
부동산	21,245.8	19,054.0	3,467.0	216.0	303.0	57.0
기타	-1,970.6	-629.6	2,655.0	3,085.0	6,129.0	2,040.0
합계	49,887.0	57,472.0	117,689.0	48,872.0	55,610.0	21,001.0

*: 추정치

자료: Bank of Thailand. 1998. 9. *Quarterly Bulletin*.

1)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World Investment Report 1998"에서 태국이 1998년에

부문별 현황을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제조업, 금융기관 및 유통부문에 특히 금융기관은 1998년 1/4분기 이후 급증하였다. 이는 태국정부가 1997년말 발표한 금융개혁조치에서 외국인에 대한 금융기관 소유한도를 대폭 완화하였고²⁾ 은행권의 외자유치³⁾를 통한 증가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부문을 보면 부동산부문과 관련이 많은 건축자재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부문 투자는 일본이 가장 활발한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으로 인해 일본기업과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대해 증가를 요청하여 지분확대를 통한 직접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98년 10월 태국정부가 30개 분야에 대해 업종을 개방키로 한 내용의 新외국인투자법(New Alien Business Law)을 발표함에 따라 다른 분야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同法案에

약 59억 달러의 FDI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이 약 47억 달러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약 36억 달러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해의 경우도 태국에 대한 FDI는 약 36억 달러, 한국은 23억 달러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3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 2) 泰國政府는 1997년 10월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은행과 파이낸스社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파이낸스社에 대한 외국인 지분확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파이낸스社의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기존에는 5년동안 25%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년동안 100% 지분으로 조정키로 하였는 바, 이는 자산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최근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泰國 금융부문의 신용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년 12월말에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 제한을 49%에서 51%로 확대하여 외국인 최대주주 탄생이 가능케 하였다.
- 3) 태국내 최대은행인 Bangkok Bank와 Bank Thai Farmers Bank는 1998년 4월말과 3월말에 주식의 신규발행에 성공, 자본금을 종전의 5배수준으로 증대하였으며, Siam Commercial Bank는 日本의 산와(三和)은행에 13%, Thai Danu Bank는 싱가포르개발은행에 50.3% 그리고 Bank of Asia는 네덜란드의 ABN-Amro은행에 75%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따르면 그동안 태국인이 독점하여온 분야에 대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였으며, 앞으로 태국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분야는 68개에서 38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태국정부는 태국인들이 주식의 최소한 40%를 보유하고 중역 5명 중 2명의 비율로 태국인을 지정하는 외국기업들도 유보된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상의 참여는 사안별로 허용할 수 있게 하되 외국인 주식보유 상한선은 7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同法案은 국가안보에 관련되거나 전통공예,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 외국인들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게 된 분야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업종(1998년 10월)

제조업	주류, 청량음료, 얼음, 성냥, 신발류(수출용 제외), 섬유, 실크, 유리, 문방구, 인쇄지, 시멘트, 시멘트 제품 및 자기류
기 타	이·미용업, 냉장, 연예오락, 사진, 제판, 세탁, 의상, 경매(골동품, 미술 및 공예품 제외), 축산, 목재, 어업, 제당, 소매, 광석거래, 기내식, 유통

반면 1996년까지 태국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닦친 부동산부문의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부문의 투자는 향후 태국경제 회복이전까지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부문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부문은 농업부문으로 1998년 2/4분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금융부문으로의 자본유입 증대

1997년 금융위기 이전 태국에는 은행의 신설 및 지점개설에 엄격한 규제가 있어 태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은행과 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은행설립 및 지점개설은 까다로운 편이었다.

이로 인해 태국내 자본가들은 은행보다 설립이 용이한 파이낸스社를 설

립하였고 1997년 12월초 태국정부의 부실 파이낸스社 56개社에 대한 폐쇄 조치 이전까지 91개의 파이낸스社가 난립하였다. 또한 1993년 9월 태국정부는 방콕을 동남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방콕역외금융단(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BIBF)을 설립하였다. 태국정부는 15개 국내 은행중 11개 은행과 태국에 지점개설을 하지 못했던 20개의 외국은행으로 BIBF를 구성하여 역외금융업무를 허가하였다.

파이낸스社는 일반 상업은행업무는 외화차입에 의한 부동산담보 대출, 투자신탁 및 증권업무 등에 한정되었으며,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인 예금수납과 외환업무는 정부로부터 규제되었다. 그리고 태국정부는 BIBF에 편입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외자도입과 대출실적에 따라 조건부로 은행업무를 인가해 주기로 약속을 하여 여기에 편입된 외국계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과 외화도입을 통해 지점승격을 위해 노력을 시도하였다.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BIBF는 실질적인 태국의 금융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자유입이 전면 자율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BIBF를 통해 유입된 低利의 달러자금은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출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생산부문의 재투자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오피스텔 등 비생산적인 부동산부문에 투입되어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은 외국인들에게 태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부문으로 직접투자가 증가한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국정부의 금융부문 투자에 대한 위험보증

태국정부가 1998년 8월 14일 발표한 종합금융개혁패키지에서는 은행의 증자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위험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감자후 증자를 하는 경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이 투자한 규모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가 태국 금융시장의 높은 위험도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을 우려, 정부가 동등한 지분을 참

여하여 위험부담을 공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태국정부도 동등한 부담을 안게 된다.

1998년 11월 2일 태국정부는 국유화 은행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약속하였는데 1998년 8월 14일 발표한 종합금융개혁패키지에서 채무-주식교환후 해외매각 조치하기로 한 Siam City Bank와 Bangkok Metropolitan Bank 그리고 Laem Thong Bank를 인수한 우량은행인 Radanasin Bank 등 3개 은행에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부문이 매입할 경우 6년간 보증기로 하였다.

태국정부가 보증하게 되는 방법은 중앙은행의 금융기관개발기금(FIDF)과 투자가 지분비율을 6년간 상·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첫해에는 90 : 10, 2년째에 80 : 20, 3년째에 60 : 40, 4년째에 50 : 50, 5년째에 40 : 60 그리고 6년째에 80 : 20 으로 조정하고 7년째에는 기금의 의무는 종료하게 된다. 태국정부는 同 3개 은행이 현재 대규모의 부실채권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매각이 실현되더라도 2~3년간은 손실이 불가피하여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정부의 위험부담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 및 외자유치노력은 투자자들에게 대해 신뢰감을 주는 조치로서 향후 은행권의 위험발생시 기금의 확충을 통해 예금자보호와 엄격한 금융기관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외국인 소유지분 상황

태국정부는 1997년 10월 발표한 금융개혁안에서 은행과 파이낸스社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파이낸스社에 대한 외국인 지분확대를 허용기로 하여 파이낸스社의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5년동안 25%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년동안 100% 지분으로 조정기로 하였다. 이는 자산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태국 금융부문의 신용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同年 12월말에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 49% 제한을 51%로 확대하여 외국인 최대주주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태국정부는 취약한 은행권에 외국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한 은행을 국내은행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하였다. 이는 1964년 이래 외국계 은행에 대해 1개지점을 설치하여 제한된 은행업무를 허용한 것에서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IMF와의 합의사항인 금융부문 개혁을 위해 태국정부는 국내 은행에 대해 법정자본금을 상향조치하여 사실상 자본증자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은 자발적인 자구노력과 외국인투자를 모색해 왔다. 부실화되어 자생이 불가능한 4개 은행은 태국정부가 1998년초 국유화조치하여 외국인에 매각을 추진하였다.

〈표 II-7〉을 통해본 은행별 외자유치 현황은 태국최대 은행인 방콕은행(Bangkok Bank)과 농민은행(Thai Farmers Bank)은 1998년 상반기에 외자를 도입하여 자본재구성에 성공을 하였다. Bank of Asia는 네덜란드의 ABN-Amro에 75% 지분을 매각하였고, Thai Danu Bank는 싱가포르의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에 54%의 지분을 매각하였다. 한편, Laem Thong Bank는 감사후 우량은행인 Radanasin Bank에 합병예정이나 1998년초부터 홍콩의 은행이 지분투자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합병이후에도 홍콩계 은행의 투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Citibank에 매각 가능성이 높았던 First Bangkok Bank는 교섭과정에서 부실채권 등의 문제로 인해 매각에 실패하여 국영 Krung Thai Bank에 합병될 예정이다.

태국의 파이낸스社は 非은행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 실제 역할은 은행과 같다는 점에 비추어 은행과 非은행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파이낸스社の 설립은 태국의 금융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특성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파이낸스社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결국 금융시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미 부실 파이낸스社에 대한 대대적인 폐쇄조치를 단행한 태국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파이낸스社에 대한 영업규제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파이낸스社에 대한 외국인 자본유입이 증

〈표 II-7〉 태국 금융개혁안의 상업은행에 대한 조치

은행	BIS비율	금융개혁조치	비고
Bangkok Bank	14.14	현재제유지	98년 상반기 외자도입
Thai Farmers Bank	16.80	현재제유지	98년 상반기 외자도입
Krung Thai Bank	9.94	정부지원대상은행	국영은행
Bank of Ayudya	9.01	구조조정	
Thai Military Bank	9.10	구조조정	
Siam City Bank	6.77	FIDF의 채무-주식 교환에 의한 증자후 해외매각	국유화조치 은행
Bangkok Metropolitan Bank	2.11	"	국유화조치 은행
First Bangkok City Bank	6.41	Krung Thai Bank 인수	국유화조치 은행
Bangkok Bank of Commerce	0.61	자산관리회사(AMC)로 전환	국유화조치 은행
Bank of Asia	11.20	현재제 유지	ABN-Amro(和)에 지분 75% 매각
Thai Danu Bank	12.40	현재제 유지	DBS Bank(싱)에 지분 54% 매각
Nakhornthon Bank	7.00	구조조정 추진	영국계 은행에 지분매각 추진
Union Bank	3.66	1/1,000 감자후 Krung Thai Bank에 합병	
Laem Thong Bank	7.50	1/1,000 감자후 우량은행 Radanasin Bank에 합병	
Siam Commercial Bank	-	정부지원대상은행	왕실은행

자료: Ministry of Finance of Thailand

삼성경제연구소, 1998. 10. 「주간경제동향브리핑」

가할 수 있었다. 외국인과의 합작 보험사의 경우, 현재 지분 소유한도가 40%로 제한(1995년까지 25%)되어 있으나 태국 상무부는 70%까지 상향조정을 검토중에 있다.

3) 기타

이밖에 외환위기 경험을 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외국인투자자들은 노사분규를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직접투자시 고용 승계의무 등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정리해고가 이미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폐쇄, 합병 등이 용이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합작이 경제전반에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은행권의 주인이 대부분 화교계라는 점은 인근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의 자본이 은행인수와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국은 BIBF 설립 등으로 외자유입이 이미 자유로운 상황 이어서 외국인이 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기타 동남아국가보다 양호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 일본기업의 투자방식 변화⁴⁾

태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태국에 있는 일본계 합작회사에 대한 추가출자를 하고 있다. 현재 계획중인 도요타자동차의 증자를 합치면 추가출자 총액이 약 100억 바트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1998년 1~6월간 일본측의 합작회사 지분이 절반을 넘어선 경우도 50개사에 달한다. 태국측 파트너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일본측 투자기업이 할 수 없이 증자를 맡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여서 일본기업들의 합작회사 관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4) 이지평·송민선. 1998.3. 『동남아 진출기업의 통화위기 대응방안과 현지화 전략』. LG 경제연구원

태국 투자청은 1997년 1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외국자본이 추가출자한 합작기업은 모두 123개사로, 이 가운데 72개를 일본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997년말 50% 미만으로 규제했던 외국인 출자를 투자청 인가기업에 대해 적용을 해제한 결과 일본측 지분이 과반수인 기업이 이미 47개사에 달하며, 투자청 대상의 기업을 합하면 50개사가 넘는다.

추가출자가 두드러진 업종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등이다. 미쓰비시(三菱) 자동차공업은 태국 합작회사의 출자비율을 48%에서 98%로 높여 子會社化 했다. 혼다(本田) 공업도 태국과의 합작회사 증자에 참여하면서 출자비율을 37.7%에서 88%로 끌어올렸다. 도요타(豊田) 자동차도 태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현재의 9배인 45억 2,000만 바트로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계 기업이 증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자부담 경감과 수출확대 및 AFTA 역내관세 인하에 대비한 투자라는 세가지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AFTA는 2002년부터 역내관세를 대폭 인하할 예정에 있어 일본기업의 활발한 지분참여를 통한 경영권장악은 ASEAN 역내에서 부품조달 확보와 수출전략 수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국의 2대 냉연강판 회사는 모두 일본측이 과반수 주식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의 화교계 기업인 싸하그룹과 NKK·마루베니(丸紅) 등이 출자한 합작회사는 일본측 출자비율이 30%에서 52%로 상승했다. 1998년 11월 조업을 개시하는 싸얌시멘트와 新日本製鐵 등의 합작회사도 태국측의 요청에 의해 일본 등 외자의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 이밖에 케인, 아사히(旭)테크, 도요타合成 등 자동차부품 메이커와 요코가와(横河)전기, 다이헨 등의 합작회사는 일본측의 과반수 기업이 되었다.

태국은 1997년 바트貨의 평가절하로 외화표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초과 위기에 빠진 합작기업들이 적지않다. 태국측이 자금부족으로 증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일본측이 추가출자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일본기업들은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은 출자비율 변경과 관련하여 합작상대나 대상국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태국측이 증자에 응하지 못해 일본측이 출

자비율이 높아진 혼다공업 현지법인의 경우, 태국측 주주가 10년 이내에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을 붙여 태국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태국 현지법인의 40억 바트 증자를 예정하고 있는 도요타는 일본측 70%, 태국측 30%의 비율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싸얌시멘트, 방콕은행 등 기존의 태국측 주주가 증자에 응할 수 없더라도 태국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도요타 오토 바디 타일랜드'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70% 비율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국에서는 경제위기에 편승해 외국자본이 태국산업을 탈취하고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측의 강제적인 경영권 장악시도는 현지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Ⅲ.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변화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은 태국과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二重苦속에서 기업의 특성, 즉 내수와 수출의 비중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동남아지역에서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거점을 이전한 기업의 경우는 바트貨의 평가절하로 인해 회복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한국에 닥친 위기로 인해 국내 모기업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태국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급감, 한국 외환위기로 인한 브랜드이미지 악화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국내 모기업의 지원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태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최대 애로요인으로 현지 금융시장 신용경색과 자본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채산성 악화 및 현지 파트너의 경영사정 악화로 원만한 합작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들었다. 현지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지적한 경우는 태국 금융기관의 고금리, 금융권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대출동결과 한국의 외환위기에 따라 태국내 은행들의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증대와 한국계 기업의 자금조달 협상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시 고비용의 국내자금 조달보다는 저리의 해외자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기업의 신뢰도 하락은 곧 현지금융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계 기업이 처한 어려움으로는 모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축소와 인원감축, 향후 사업전망 불투명에 따른 장기전략 수립의 어려움 및 현지 주재원 축소를 지적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실적호전 사례, 경영악화 사례 및 기타 사례로 분류하여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실태를 분석하였고 경영실적 변화요인을 도출하였다.

1. 실적호전 사례

가. R社의 사례

1) 투자개요

- 투자업종 : 건전지
- 투자지역 : 태국 차츄싸오
- 투자시기: 1990년 4월
- 투자금액 : 390만 달러
-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 원부자재 조달방법 : 현지조달 30%, 본사조달 15% 그리고 본사이외의 해외조달 55%
- 매출액 구성 : 생산품 전량 수출

2) 태국진출 배경

1980년대말 인건비, 환율, 원료비 상승 등 3고현상으로 국내외 경쟁력 약화와 노사관계 대립으로 인한 경영압박 등으로 同社는 경영쇄신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게 되었는데 해외투자지역을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및 호주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태국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며, 저임금, 조세, 관세 면제 및 저금리 융자혜택 등이 있으며 지리적 입지조건이 동남아 중심지라는 점에서 적격지로 판단되어 진출하게 되었다.

同社는 생산품 전지를 한국으로 수출하며, 생산능력 여력으로는 태국은 물론 동남아·유럽권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며 1995년부터 이를 실천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망간전지를 태국법인으로 설비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여 동남아 최대 망간전지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同社의 건전지 생산현황은 랜턴용 전지 4R25를 연간 720만개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로 및 지시등, 호출기용 알카라인 등 다양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Ⅲ-1〉 R社 태국법인의 생산능력

구 분		생산능력/연간	비 고
건전지	4R25	7,200,000	랜턴용
	2SM	2,400,000	도로 및 지시등
	4DM	600,000	일반다용도
	6DM	800,000	일반다용도
	LR-6	10,000	호출기
	LR-03		
랜 턴	RL-303	300,000	일반용 후레쉬
	RL-404	300,000	

3)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운영실태

(1) 태국 외환위기 이후 운영실태

무엇보다 1997년 태국 외환위기는 시중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자금조달여건 악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자재수입 및 해외차입금의 환차손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전량 對한국 수출을 하고 있는 망간전지의 경우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이전인 1997년말까지 매출액은 변동없으나 바트貨 가치하락으로 이익은 증가하여 환차손을 상쇄하였다.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 직후 同社는 수출경쟁력은 상승하였으며, 노동시장, 소비자 수요 등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외환관리, 원부자재 조달, 현지 및 역외자본 조달여건은 악화되었다. 즉, 同社는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만한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유동성부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었다.

〈표 Ⅲ-2〉를 통해본 同社의 현지법인 경영성과를 보면 투자수익률과 매출액수익률은 1997년까지 적자상태를 기록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영환경면에서는 외환위기 발생시기인 1997년부터 양호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97년말까지 망간제품의 경우 매출량 변동은 없으나 對韓 수출 특성상 매출이

익을 기록했으며, 특히 1998년 상반기 총매출액 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은 100%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바트貨의 평가절하로 인한 對韓 수출시 발생한 환차익에 기인한다.

〈표 III-2〉 외환위기 이후 R社의 경영성과 변화

(단위 : %)

	1996	1997	1998(상반기)
투자수익률	△2.4	△2.6	8.6
매출액수익률	△4.6	△7.3	39.8
총매출액 증가율	9.4	30.0	97.2
수출액 증가율	10.0	30.6	94.1

(2) 한국 외환위기 이후 운영실태

同社は 전지제조의 원료인 망간, 아연의 경우 한국에서 일괄구매하여 공급받고 있고 자재의 7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조달여건이 악화되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부터 자재를 매입율에 구매하여 생산품을 매도율에 판매하여 손실을 입고 있으며, 한국본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태국법인의 수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전량 한국수출이라는 고정시장이 있는 同 법인의 사업환경이 양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 본사로부터 자재수입이 급감하여 유휴설비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망간전지의 경우 한국의 경제상황이 수출액 변동에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알카전지는 태국내수도 함께 하고 있는데 호출기와 휴대용 카세트 등에 사용되고 있는 同 전지의 수요는 태국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어 비록 한국수출 부진을 상쇄할 수준은 못되지만 同社가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주목된다.

(3) 향후 투자활동 전략

同社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외자와 차입금의 환차손에 의한 손실과

한국시장 의존에 의한 수출감소를 들 수 있다. 1998년 상반기까지 매출량 변동은 없으나 대일 수출품목인 2SM라인에 생산인력을 약 40명정도 증가시켜 가동하고 있다. 또한 태국경제가 침체기여서 내수가 부진하다고 하나 태국내 호출기 사용자는 현재 증가세에 있고 이에 따라 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수판매 비중증가에 기대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위해 同社는 판매법인을 1997년에 설립하여 본격적인 내수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同社는 한국상황의 변화가 향후 투자활동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으로 수출감소가 불가피하여 同社는 사업전략변경의 핵심으로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바, 수출목표를 1996년보다 3배 늘어난 300만 달러로 설정하였다.

同社는 제3국 수출전환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동유럽지역을 선정하였다. 1997년 본사는 국내 재벌기업과 합작으로 폴란드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생산은 R社, 판로는 동유럽에서 넓은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기업이 담당하여 태국산 전지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對동남아 수출도 1998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2000년까지 유럽 및 미국으로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적극적인 위기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표 Ⅲ-3〉 매출액 구성

	1995	1996	1997	1998(상반기)
내 수(%)	1	1	1	5
수 출(%)	99	99	99	95

4) 애로점

투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同社의 경쟁사는 대부분 일본업체이나 적극적이고 성실한 투자활동에서 일본업체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개발 지원으로 현지법인들이 투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기업들은 기업자체의 노력에 의존하여 투자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외환위기 관련하여 생산제

품 대부분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同社의 경우 한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수출선 다변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무엇보다도 한국경제 회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同社의 투자활동의 한계요인이다.

나. H社의 사례

1) 투자개요

- 투자업종 : 신발
- 투자지역 : 태국 촌부리
- 투자시기 : 1988년 3월
- 투자금액 : 312만 달러
-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 현지 종업원 : 약 2,000여명
- 공장규모 : 신발 월 20만 족 생산
- 원부자재 조달방법 : 현지조달 25%, 본사조달 60% 그리고 본사이외의 해외조달 15%
- 매출액 구성 : 생산품 전량 수출

해외직접투자의 진출형태로 당초 합작도 고려해 보았으나 한국식 경영에 비중을 두고 100% 단독투자를 추진하였다. 합작투자시 언어·관습·문화 등이 판이하게 다른 현지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파트너와 경영상 의견충돌 등 사업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지 공장 인력은 한국에서 파견된 중간관리자급과 이사 1인 현지종업원 2,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수로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중 최대규모이다.

2) 태국진출 배경

同社의 투자동기는 선진국의 쿼터규제 회피와 자사 고유상품 생산거점 확보에 목적이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게 된 1988년 당시 70% 이상의 신발을 미국에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등 미국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날로 악화되는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산업

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신발수출에 대한 쿼터규제를 강화하였고, 아울러 달러의 가치하락을 유도하였다. 더욱이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원가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발 수출가격의 동결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동사는 지속적인 수출신장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同社は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기지를 모색하던 중 태국을 투자 최적지로 선정하였다. 즉, 태국은 비쿼터지역으로 해외투자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감면, 풍부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불교문화권에 대한 동질감 등이 크게 작용하여 태국으로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

3)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운영실태

同社は 내수를 하지않는 주문수출형 기업으로서 미국 Nike社의 주문에 의한 납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영향이 미미한 기업으로서 오히려 제품가격 경쟁력이 발생하여 失보다 得이 많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국의 1998년 상반기까지 고금리와 국내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었다.

同社は 1997년말부터 1998년초까지 매출부진 현상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태국과 한국의 외환위기의 영향이 아닌 경쟁 브랜드의 부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同社가 제작하는 Nike외에도 Reebok 브랜드는 미국시장에서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1997년 하반기부터 Reebok의 부상으로 인해 Nike의 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주문이 급감하여 同社は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러나 미국시장에서 Nike의 재부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량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태국산 신발은 평가절하된 환율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도 Nike 브랜드 OEM 수출기업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과 금융시스템 붕괴로 태국으로 주문은 더욱 증가하였다.

同社は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60%에 달하고 있어 모기업

으로부터 원자재조달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여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同社는 현지에서의 원자재 조달비율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화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표 Ⅲ-4〉 외환위기 이후 H社의 경영성과 변화

(단위 : %)

	1996	1997	1998(상반기)
투자수익률	-	7.0	30
매출액수익률	△9.0	1.7	5.0
총매출액 증가율	△10.0	△7.0	△10.0

다. H펄프社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同社는 태국에 펄프제조사로 투자진출하였으며, 투자규모는 약 2억 5,000만 달러이다. 1999년초부터 생산예정에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19만톤에 달한다. 태국측 파트너로는 태국내 최대신문사인 Thai Rath(태국어)사에 신문용지를 납품하는 Thai News Print社로 Thai Rath은 同 공장의 생산으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산제품은 연간 13%씩 증가하는 내수위주로 현재 톤당가격은 약 500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同社는 뿌라친부리에 공장건립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2년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정부로부터 수입대체 산업으로 인정받아 1996년 투자청의 인센티브를 수혜하고 있으며, 同社는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특혜기간 연장을 요청 중에 있고 투자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경영악화 사례

가. L전자社

1) 투자개요

- 투자업종 : 전자제품
- 투자지역 : 태국 라영
- 투자시기 : 1989년
- 투자금액 : 1,500만 달러
- 투자형태 : 합작투자(태국파트너 49%)
- 원부자재 조달방법 : TV - 한국 40%, 현지조달 40%, 기타 20%,
세탁기 - 현지조달 55%, 기타 45%
- 매출액 구성 : 내수 및 수출
- 공장규모 : 세탁기 연간 20만대, TV 연간 7만 대

同社는 1980년대말 한국에서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2조식 세탁기는 동남아는 물론 오세아니아 및 중남미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 동남아 내수 시장과 수출거점 기지로 태국을 선정하여 진출하게 되었다. 진출당시에는 세탁기만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현재에는 TV, 냉장고, VTR 등 일반 가전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현재 同社의 생산공장은 세탁기라인이 있는 라영(Rayong)공단과 수도권 지역(기타 제품)의 2원화 체제이나 1998년말까지 라영공단으로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 이전할 계획에 있다. 특히 라영공단은 태국정부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3개 투자지역⁵⁾중 혜택이 가장 많은 3지역에 속해 있는데 방콕과 3시간이내의 거리이고 수출항인 램차방(Laem Cha Bang)港에 인접하고 있

5) 태국정부의 3개 투자지역은 1지역, 2지역 그리고 3지역인데 1지역은 방콕, 2지역은 방콕주변의 수도권 그리고 3지역은 기타지역으로 현재 대부분의 투자기업은 1지역과 2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3지역은 개발되지 않는 낙후지역으로 태국정부는 이지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인인 투자를 꺼리는 곳이다.

어 투자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한국은행으로부터 1988년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취득한 뒤 태국에서 조업 시작시기는 1989년으로 처음 세탁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인가 기준으로 총 투자액은 300만 달러이나 현지 법인의 실제 투자액은 1,500만 달러이다. 원부자재 조달방법은 전반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40%, 역내조달 40% 및 기타 지역조달이 20%이며, 세탁기의 경우 현지 조달비율이 55%이나 1999년에는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2) 태국진출 배경

다른 한국계 기업과 달리 同社는 시장으로서 태국을 전세계 시장의 Test market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개방정도가 아시아권에서는 상위수준이고 투자활동 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많은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홍콩은 도시 국가수준으로 국가차원에서 평가는 태국이 더 낫다는 시각이다.

진출당시 同社는 태국내수시장에서 2조식 세탁기 판매량을 약 5,000대로 설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같은 한국계 기업은 물론 일본계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同社에 대한 태국인들의 인지도는 보조인지도로서 90%, 비보조 인지도⁶⁾로는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5〉 L전자의 매출액 구성

	1995	1996	1997	1998(상반기)
내 수(%)	80	80	70	70
수 출(%)	20	20	30	30

6) 보조인지도는 自社 및 경쟁사 브랜드를 나열한 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이고 비보조인지도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기업을 인지하는지를 알아 내는 방법이다.

3) 외환위기이후 법인 운영실태

(1) 태국 외환위기 이후

同社は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사업환경 변화에 대해 개선된 점으로 인력 조달, 인건비, 외환관리, 투자환경, 수출가능성, 원부자재조달 및 현지국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 가능성을 들었으며, 악화된 점으로 내수시장 여건, 현지 및 역외자본조달 및 현지국의 무역장벽 등을 악화된 점으로 지적하였다.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에 진출한 만큼 태국의 외환위기는 同社에 악영향을 주었다. 경기침체로 시장규모가 약 40%정도 급감하였으며, 95%를 기록하고 있는 TV 보급률을 볼 때 신규수요는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대체수요와 중복수요는 급감하였다. 1997년 중반 태국의 외환위기와 함께 닥친 내수침체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탁기 생산에 있어 8:2 비율의 수출과 내수비중을 1998년부터 9:1로 수정하였으며, 수출시장으로 미국, 오세아니아를 선정하였다.

(2) 한국 외환위기 이후

내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계 태국진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는 태국 내수침체외에 한국 외환위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同社は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체계를 라영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기존공장 매각을 통한 재원으로 설비를 보강하기로 했으며, 신규투자는 전부 보류한 상태이다. 내수침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력구조조정을 약 30% 정도 정리하였으며, 일부 사무직 근로자도 생산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同社は 금융파트너로 외국계 4개 은행 및 태국계 2개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은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이후 한국계 기업에 대해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태국계 은행도 한국 모기업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자금조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III-6〉를 통해 同社の 태국 외환위기 전후 경영실적을 보자. 1997년 들어 투자수익률, 매출액 수익률 및 총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투자

수익률과 매출액 수익률은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同社は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하는 기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제품에 대한 수요부진,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투자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수출비중을 높이고 수출전략을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Ⅲ-6〉 외환위기 이후 L전자의 경영성과 변화

(단위 : %)

	1996	1997	1998(상반기)
투자수익률	10	-	5
매출액수익률	2	-	1.5
총매출액 증가율	30	△25	△30
수출액 증가율	40	40	-

4) 애로점

同社は 애로사항으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태국진출 일본기업들과의 경쟁관계를 꼽았으며, 현지화의 어려움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가전업체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고 태국진출 당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태국진출 이후 투자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쟁사인 일본계 기업들은 투자활동 이외에도 사회봉사 등 많은 현지기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가 불황인 현재에도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계 기업들에 대한 태국민의 인식이 매우 호의적이어서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의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이며, 국가별로 충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진출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진출단계에서부터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으며, 진출후에 현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외환위기 관련해서 同社は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감소가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환위기 상황극복보다는 태국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전제의 수동적인 극복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2원화되어 있는 공장을 단일화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 同社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현지화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외적인 경쟁력은 물론 내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 S전자社

1) 투자개요

- 투자업종 : 전자제품
- 투자지역 : 태국 춘부리
- 투자시기 : 1989년 7월
- 투자금액 : 5,600만 달러
- 투자형태 : 국내본사 소유 83.5%
- 매출액 구성 : 내수주력

투자초기에는 태국기업인 Saha Group과 同社가 51:49 비율로 투자한 합작형태 진출이었으나 1998년 Saha Group이 증자를 포기함에 따라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주요 생산품은 TV, 세탁기 및 냉장고이다.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데, TV의 경우 일본과 호주로 수출하고 세탁기와 냉장고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특히 세탁기는 국내본사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2조식 세탁기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어 저가인 이들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1998년 同 법인 브랜드의 인지도는 보조인지도가 82%, 비보조인지도는 43%이며, 80% 이상의 보조인지도는 오지와 농촌이 많은 태국에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업체인 Sony社의 경우 비보조인지도에서 8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부분의 업체가 50%를 넘고 있다. 경쟁사는 Sony, Panasonic 및 Sharp 등 일본업체이며,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공식후원업체 지정 이후 인지도가 높아져 일본계 기업들과의 경쟁여건이 개선되었다.

2) 태국진출 배경

同社의 태국진출 배경은 1980년대말 EU의 반덤핑으로 수출우회기지로써 對태국 투자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EU의 동남아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으로 현재는 태국내수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으로 TV는 일본과 호주에, 세탁기와 냉장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종과 다른 저가의 기종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3) 외환위기 법인의 운영실태

(1) 태국 외환위기 이후

내수에 주력하는 기업인 同社는 무엇보다 태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해 구매력이 낮아졌으며 이는 수요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률증가로 내수시장에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TV 등 同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치성제품의 성격이어서 신규수요와 중복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대체수요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급률이 높은 제품일수록 국민정서가 위축되어 내수시장에서 타격이 크다.

태국의 외환위기 이후 同社는 생산규모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정리해고는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국계 기업이라는 점과 신뢰도 유지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시안 게임 공식후원사라는 점이 더욱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용도 하락은 현지에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원자재 조달을 한국의존형에서 탈피하기 위해 1998년에는 현지 조달비중을 30%까지 올렸으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에 있다.

태국과 한국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으로 이미 태국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법인의 생존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인 만큼 한국

본사로부터 자본과 원자재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차손 방지 대책과 자본조정을 통한 자산재평가 후 경영환경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합작선과의 협력부문은 부정적인바, 同社는 핵심위주로 개편을 추진하여 태국의 투자환경에 적응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외환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수출을 위한 밀어내기식 투자활동은 지양하고 수출은 보조수단이며 현지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이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8년말 아시안게임은 同社에게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同社의 법인장은 기계류가 60%인 투자설비에 대한 보강으로 보다 나은 제품생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이전의 인건비 절약형 투자활동과 다른 바람직한 투자활동임을 역설하고 이를 통해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1998년 8월 14일 태국의 금융개혁안 발표와 함께 태국내 상업은행의 대출동결과 회수로 인해 자금난에 처해 있으며, 현지기업들에 대한 태국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同社의 경우 수출입은행(Thai EXIM Bank)으로부터 대출거래는 지속할 수 있었으며, 주거대 은행인 일본계 Sakura Bank 측과의 거래도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1998년 12월 아시안게임의 공식 후원업체로 자금지원문제는 한국의 금융위기 발생이전 이미 지출된 상태이므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대회주최측의 후원사 선정에서부터 일본업체의 치열한 견제를 받았을 정도로 아시안게임과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내수기대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태국전역에 同社의 로고가 전시되어 있으며 게임분위기가 고조되는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홍보를

〈표 III-7〉 S전자의 매출액 구성

(단위 : %)

	1996	1997	1998(상반기)
내 수	80	70	55
수 출	20	30	45

통한 내수시장에서 약진과 장기적으로 일본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이미
지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애로점

同社は 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인 만큼 1997년 이후 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전세계에
많은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모기업의 현지화전략으로 인해 태국법인 자체
의 극복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진한 내수를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출실적에 급급한 밀
어내기식 수출을 지양한다는 것이 同社の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브랜드이미지가 악화되어 태국에서 협상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내수기반 확보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아시안 게임
공식후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치열해진 일본기업들의 견제도 同社가 극복해
야 할 과제이다. 일본기업들은 역으로 자신들의 내수기반이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이미지 향상효과를 우려한 나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저가제품을 무
기로 내수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同社は 현재의 외환
위기를 내수기반 안정화와 일본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삼아 향
후 투자활동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다. L화학

1) 투자개요 및 태국진출 배경

- 투자업종 : 석유화학, 생활용품
- 투자지역 : 태국
- 투자시기 : 1993년 4월
- 투자금액 : 600만 달러
- 투자형태 : 합작투자(태국파트너 50%)
- 원부자재 조달방법 : 현지조달
- 매출액 구성 : 내수 및 수출

同社は 설탕, 감미료 등 식품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법인으로 태국産 타피오카 조달을 위해 진출하였다. 태국 Wah社와 50 :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3년 4월 조업을 시작하였다. 원자재인 타피오카는 태국산을 전량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2) 외환위기 이후 법인운영 실태

同社は 태국 금융위기 이후 내수가 급감하여 수출을 모색하던중 바트貨의 평가절하를 배경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호전되어 내수부진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였다.

〈표 III-8〉 L화학의 매출액 구성

	1995	1996	1997	1998(상반기)
내 수(%)	60	82	75	90
수 출(%)	40	18	25	10

따라서 외환위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同社は 1997년의 이상기후로 인한 타피오카 생산 급감과 이에 따른 원자료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원자료 가격의 상승폭이 100% 이상으로 환율 평가절하분 이상의 생산비가 소요되어 외환위기 외적요인에 의한 경영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외환위기는 수출감소로 이어져 수출선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8년에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어 타피오카 생산에 대한 영향과 타피오카 가격의 급등현상을 지속되었다.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던 同社は 한국의 외환위기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현지 파트너와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한국의 모기업에서는 태국투자활동 철수를 고려중에 있다.

라. D엔지니어링社

同社는 설계위주 서비스 용역을 하는 법인으로 1991년 5월에 진출하였다. 당시 태국은 전기수요가 급증하여 많은 발전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선진국들의 개발러시를 이루었던 태국 북부와 동북부의 메콩강 유역의 잠재 수요는 대단하였다. 그러나 1996년말부터 태국에서 진행된 부동산경기 침체와 태국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해 발전소 및 건설관련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대부분의 한국계 직원은 철수하였고 현지에는 태국인 직원 2명만이 상주하고 있다. 1997년 태국 외환위기 이후 同社의 한국계 직원철수로 사실상 법인의 기능은 상실하였으며 현재는 주재원 연락사무소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3. 경영실적 변화의 요인

한국법인들의 경영실적 변화의 요인은 바트貨 평가절하와 내수침체 및 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들 수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경영여건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수출품 대부분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국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동구와 남미 등으로 뒤늦게 대응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한 매출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바트貨가 고평가되어 수출물량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주문이 증가하여 오히려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내수위주의 기업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전기, 전자업종인 이들 기업들은 일찍부터 내수를 목표로 태국에 진출한 만큼 경영여건 악화는 불가피하였다.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비중을 높이기도 하였으나 내수경기 회복시까지 생산량 감축, 현지화 등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경기침체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 취소로 인해 철수를 하

였다.

그러나 한국법인 대부분은 한국의 외환위기에 따라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이 감소하였고 이외에도 국가신용등급하락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영여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V. 현지법인들의 구조조정

1. 수출선 다변화

수출형 기업은 태국의 외환위기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이나 수출지에 따라 그 영향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 걸쳐 폭넓게 수출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시장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OEM 방식의 주문형 수출기업의 경우 기타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해진 태국으로의 주문량이 증가하여 투자활동에 있어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社와 같이 주문형 수출기업이라 하더라도 세계시장의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운동화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세계시장에서 운동화보다 캐주얼신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으로 대부분 수출을 하는 법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본사로부터의 지원 및 對韓 수출량 감소, 수출대금 미회수, 한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태국에 판매법인 설립을 통하여 내수시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수출선 다변모색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의 판매망 제휴를 통해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2. 내수기반 확충

내수형 기업은 무엇보다 경기침체라는 악조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내수형 기업은 현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기업들로 모기업은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따라서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협상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 고금리에 의한 자금난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법인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매출액감소로 적극적인 외환위기 극복의 대안이 있다기 보다는 태국경제, 나아

가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동 기업들의 상황도 호전될 수 있다는 다소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 내수상황에 맞추어 생산량 감축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 한국법인들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현지화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외적인 경쟁력은 물론 내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8년말 국제대회인 아시안 게임 이후 내수가 어느정도 회복할 것에 대비 단기적으로 홍보를 통한 내수시장에서 약진도 모색하고 있다.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평가

한국법인들은 태국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 법인별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한국법인들의 투자활동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외환위기 이후 현지의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사업환경, 즉 원부자재 조달, 자본조달 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현지법인의 자본조달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인력조달, 인건비는 외환위기로 인해 오히려 개선되어 현지법인에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국진출 한국법인들은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 진출했던 기업 중 철수한 경우는 건설관련 회사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현지법인들은 향후 투자철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회복을 2년정도로 보고 있어 태국시장의 잠재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한국법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자금조달과 환차손 방지를 위해 우선 선물환 예약을 확대하였고 현지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 외환위기를 계기로 달러이외의 자금으로 조달선을 변경하고 있다. 한국법인들은 우량은행과 외국계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 자금조달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

나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라 한국 모기업의 보증요구 혹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은행의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의 비교

가. 환차손 경감

태국 외환위기로 일본기업들은 우선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대금이 나 외화 차입금 상환부담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트貨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달러에 거의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외환위기와 금융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위기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1) 선물환 예약확대

바트貨의 폭락직후 일본기업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예약을 확대하고 있다. SONY의 경우 1997년 7월 선물환 예약으로 달러를 확보하는 금융거래를 처음 실시했으며, 마쓰시다 전기도 현지판매대금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물환 예약으로 바트貨를 매각한 바 있다. 종래 선물환 예약을 해왔던 일본기업들도 선물환 예약비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대금결제조건변경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판매대금을 외화로 받는 결제방식을 도입해 대응하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마루베니의 경우 계획중인 전력 매각사업에 구매자인 전력청(EGAT)에 결제대금의 90%를 외화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3) 달러이외의 자금조달

일본계 기업들은 현지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해 설비투자 등에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지만 통화위기를 계기로 달러이외의 자금으로 조달선을 변경하고 있다.

4) 현지 우량금융기관들과의 제휴

외화자금을 주로 활용해 왔던 일본기업들이 현지통화 사용을 확대하면서 현지 우량 은행들과 제휴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태국의 우량은행인 방콕은행과 농민은행(Thai Farmers Bank) 등과 제휴를 통해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나. 현지 매출감소 대처방안

외환위기로 환차손 및 대금결제 리스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수가 침체되어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자 일본기업들은 생산량 삭감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체의 경우 태 국내에서 매출이 2000년에 8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생산체제를 확장했기에 경기침체는 자동차기업에 대해 타격이 아닐 수 없다. 1996년 판매실적은 59만대였으나 1997년 40만대, 1998년에는 30만대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계 백화점의 경우 약 50% 정도의 매출감소에 처해 있으며 외환위기 직후 태국정부가 조치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세금 인상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 생산량 삭감

내수침체에 대응하여 일본기업들은 우선 적자폭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요타는 1997년 생산일수를 주4일제로 변경하였고 2교대 근무체제도 1교대로 전환하여 예년의 30% 수준의 생산을 하고 있다.

2) 원가절감

매출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태국에서 당분간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진행중인 공사를 제외한 프로젝트는 인원을 정리하여 장기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한 가시마건설은 약 30%의 인력을 삭감한 바 있다.

3) 추가투자 통한 현지기반 확충

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나 현지 잠재성을 재평가한 일본기업들은 외환위기 직후의 시점을 겨냥하여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현지에서 사업기반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1998년 6월까지 출자비율을 25%에서 49%까지 확대하여 2000년을 목표로 저가격의 승용차를 태국에서 생산하여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합작사에 대한 추가출자로 현지거점의 경영을 보강하고 있다.

다. 수출증대

1) 바트貨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효과 기대

일본기업들의 태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을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한 위기대응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비율이 80%에 달하는 섬유회사의 경우 바트貨의 하락으로 수익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긴 하나 수출확대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현지판매거점을 수출판매거점으로 전환

내수에 주력하여 왔던 일본기업들은 내수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수출비율을 높이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태국공산에서 생산하는 소형트럭을 1998년 하반기부터 호주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워 월간 수출물량을 천대 이상

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요타가 태국산 트럭을 수출하기는 금번이 처음이다.

히타치의 경우 내수비율이 높아 고전하고 있는데 히타치는 판매대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판매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회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현지거점을 수출용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의 이러한 수출증대는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일본계 기업간 경합을 피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라. 현지화 강화

일본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기업들은 불안해진 아시아각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판매망이나 인재교육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들은 아시아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시장규모가 크거나 성장력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자여력이 있는 일본기업의 경우 현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구조 재구축의 好機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한국현지 법인의 경영개선 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기업들은 한국과 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여러가지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투자활동 환경도 변화하였다.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가 가능해진 반면, 환차손에 의한 경영상의 애로점을 극복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었고 對韓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대금회수와 수출감소에 따른 기타 시장으로의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내수를 중심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태국의 외환위기가 가져온 내수침체로 내수기반 상실 우려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한국법인들은 원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양국의 외환위기 상황에 따라 현지조달 또는 역내조달 비율을 높이는 추세이고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국내 본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태국현지 금융기관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담보가 있어도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한국계 기업들의 현지 금융기관 파트너로 외국계 은행을 선정하고 있고 태국계 은행은 건전도가 양호한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 예상과 달리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불신감으로 인해 현지법인들의 협상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우리나라와 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문제점을 볼 때 향후 우리기업들의 對태국 투자진출 전략은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한국기업들은 태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투자러시를 이루었으나 앞으로 충분한 현지화확습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태국은 경제회복의 모범국가이며, 회복가능성이 어느 위기당사국보다 높고 시기가 빠를 것이 예상되므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투자활동 전략이 필요하다. 태국은 앞으로 10개국으로 확대될 ASEAN 협력체에서 지리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핵심국가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參考文獻

權耿德, 「泰國 은행부문의 구조와 현황」. 『亞洲經濟』. 1997. 제1권, 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주간세계경제동향』.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1998. 8. 25 「주간 경제 Brief」.

LG경제연구원. 1998. 3 『동남아진출기업의 통화위기 대응방안과 현지화전략』.

Board of Investment. *BOI Investment Review, Various Issues.*

Bank of Thailand. 1998. 6 *Quarterly Bulletin, 1998. 6.*

OECD.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ailand.*

UNCTAD. 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さくら総合研究所, 『タイでの事業展開』, 1996.

日本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報』. 1998. 7.

Executive Summary

Currency Crisis and Difficulties for Overseas Affiliates: A Case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Korean Affiliates in Thailand

Kyoung-Doug Kwon

Stubborn defense of currencies depleting foreign currency reserves led to financial crises in Korean and Thailand. This resulted in both countries agreeing to implement restructuring and liberalization measures in exchange for much need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both countries have continued to work closely with the IMF and have made great strides toward recovery.

Demonstrating the success of Thailand's response, many foreign investors have made significant recommitment or continued commitment to the country. Investment from the EU, the US and Japan have all increased lately. In addition to the improving prospects of the domestic economy, investors are drawn to the lower labor and raw material costs offered since the fall in the value of the Baht.

The Bank of Thailand announce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talled USD 7.6 billion in 1998, the highest level in the country's history. A total of USD 2.1 billion was invested in the banking sector, with the remainder going to the real sector. Of the USD 5.5 billion investment in the corporate sector, USD 4.5 billion went towards equity investment. Japan was the largest investor in 1998, accounting for one-third of total inflows into Thailand,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with a 17% share and Hong Kong with a 9% share.

The industrial sector received 47% of non-bank FDI in Thailand, followed by 18% in trading and holding companies and 13% in financial institutions, mostly in retail banking. Investment in the machinery and transportation sectors accounted for 31% of total industrial investment in 1998, followed by 17% going to the oil refinery sector, 16% in the ferrous and non-ferrous metals sector and 9% in the petrochemical sector.

The majority of foreign investment to Thailand in 1998 was used to boost the the financial structure and efficiency of local firms. Almost none went towards increasing production capacity. This trend will likely continue until recovery has been realized and positive growth has continued for a number of years. Meanwhile, worries of a widespread takeover of key Thai industries by foreign investors have proved largely unfounded. In a survey of 50 leading industrial firms in Thailand, only 14% of foreign investment in 1998 was characterized as investment intended to rest corporate management away from domestic control.

To further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foreign investment, in June 1998, the Thai Government announced a series of measures designed to help revive the economy by attracting increased foreign investment. Such measures would also indirectly improve efficiency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ai industries, and decrease unemployment through the creation of new jobs.

These measures included the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the location of export promotion zones. Such zones, in which foreign companies targeting exports out of Thailand may set up operations and receive various incentives, may now be established anywhere in the country, with the local governments given largely free reign as to what incentives they want to provide. Foreign companies will be able to import most raw materials and other intermediary goods intended for exports, and also machinery using higher technology, duty-free. Meanwhile, guidelines governing the evaluation of expansion projects by foreign companies have been clarified. Such investment must surpass the former company's one-year sales by 80% and increase employment by either 500 employees or by 50% of the prior level. For projects meeting these criteria, an income tax waiver for 3 years will be provided if the project is located in the Bangkok area and up to 5 years for projects outside of the capital. Applications for these expansion projects must be submitted to the Board of Investment (BOI) no later than December 31, 1999.

Other amendments under the Alien Business Laws that will boost foreign investment and presence in the Thai export sector will also be studied and implemented. The BOI will cooperate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tudy which agricultural and agro-industry activities can be added to the list of activities in which foreign companies may be eligible to receive incentives.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determine measures to encourage foreign companies to provide greater levels of training, engage in increased level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o apply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more widely. An environment will be created to revive the real estate sector by enabling foreign companies to purchase a specified number of existing buildings, within a given time frame. The liberalization of BOI Investment Laws and Alien Business Laws will be implemented to ensure all of the above take place.

Despite these increased incentives to foreign investment in Thailand, Korean direct investment in Thailand has continued to fall, while that of Japan and most advanced western nations increase. This is largely due to Korea's own credit crunch and falling credit ratings making finding needed financing impossible.

As for Korean companies already operating in Thailand, performance has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ales targeted. Broadly, export-oriented Korean affiliates in Thailand have outperformed those affiliates relying mostly on domestic Thai sales due to the domestic economic difficulties. However, even export-oriented affiliates have not escaped difficulties as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 companies back in Korea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forcing them to often totally fend for themselve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ose exporters that must first obtain raw materials from Korea, troubles of the home-based companies have interrupted a smooth supply of raw materials. Meanwhile, those companies relying on sales to the domestic Thai market have had to try to reverse strategies and increase export sales.

Overall, the coping strategy of Korean affiliates operating in Thailand is an increase in the localization ratio of production. However, Thailand shows the greatest promise of recovery among those Asian economies suffering from the financial crisis. Thus, to capitalize on the eventual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Korean companies must maintain a Thai presence and implement and pursue new investment strategies vis-a-vis the country. However, such investment is unlikely to be implemented unless government support is forthcoming. Such support is exactly what Japanese government is actively providing its own country's firms operating in Southeast Asia. Similar ac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would ensure continued competitiveness by Korean firms in the region and prevent Koreans from missing out on the substantial opportunities provided by still promising potential of Thailand.

發刊資料 目錄

■ Working Papers/資料論文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金廷洙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L.Y. 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郭承滢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朴泰鎬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洪裕洙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柳莊熙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Jai-Won Ryou · Byung-Nak Song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Sung-Hoon Park
-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Wook Chae
-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Chung Ki Min
-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Joo-Sung Jun
-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Yoo Soo Hong
-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Jin-Soo Yoo
-

-
-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 Jae Lee
-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Je Hoon Park
-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Yoo Soo Hong
-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 A Korean Perspective
Wan-Soon Kim
-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
Retrospects and Prospects
Yunjong Wang · June-Dong Kim
- 96-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Suchan Chae
- 96-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Korea's Role and
Priorities in the WTO System
Chan-Hyun Sohn
- 96-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Wook Chae
- 96-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Joongi Kim · Jong Bum Kim
- 96-07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
Young-Soo Woo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
The Case of Korea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Jaebong Ro · Hyungdo Ahn
-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王允鍾 · 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Jong 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Seunghee Han ·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 事例 研究: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金元鎬 · 李景姬 · 盧相旭 · 權耿德 · 元容杰 · 金完仲
-

-
- 97-10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李鍾華
- 97-1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鄭鎔株
- 98-01 韓·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程勳·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金寬濤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June-Dong Kim ·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Chan-Hyun Sohn · Junsok Yang · Hyo-Sung Yim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Chong Wha LEE
- 98-07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①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英國 申東和
- 98-08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②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金完仲
- 98-09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③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美國 朴英鎬
- 98-10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④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中國 金琮根
- 98-11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⑤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 權耿德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Hyungdo Ahn ·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王允鍾 外
-

權耿德

韓國外國語大學校 泰國語學科 卒業(1992년)

同 大學院 經濟學 碩士(1997년)

現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員

著書 『泰國 便覽』(1997)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우리나라의 參與方案』(1997, 共著)

『IMF 救濟金融 事例研究』(1997, 共著)

資料論文 98-11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5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

1998년 12월 25일 인쇄

199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0-4

전화: 3460-1061, 1179 FAX: 3460-1044, 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李鎬烈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4038-8

89-322-4027-2(세트)

값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1998년 11월부터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종류및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 회원특전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A	B	C	D	E	F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입체	무역·투자	구주경제	미주경제	아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교환기관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 <input type="checkbox"/>							
이사 <input type="checkbox"/>							
OB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